

코로나19에 기상 악화까지...수산물 수출 '뚝'

한은 목포본부 현장리포트...7~8월 수산물 수출액 30% ↓
올 4~7월 수출액 513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6.6% 감소
해조류 50.6%·패류 36.8% 감소...코로나로 부진 지속 될 듯

코로나19로 인한 무역장벽으로 전남지역 7~8월 수산물 수출이 3분의 1 가량 급감했다. 이 같은 내용은 27일 한국은행 목포본부 박지섭 과장이 발표한 현장리포트 '전남지역 수산업,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부진 지속'에 담겼다. 올해 7~8월 2개월 동안 전남지역 수산물 수출액은 3370만 달러(396억원)로, 1년 전보다 30.3%나 감소했다. 박 과장은 "기상조건 악화로 김 등 해조류 생산이 줄어들었다"며 "게다가 해조류 주요 수입처인 일본, 미국, 중국 등에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선적 및 통관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

출 감소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상반기(1~6월) 국가별 해조류 수출 실적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일본은 27.8%, 미국 96.5%, 중국 66.5% 감소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해조류 주요 수출 비중은 일본이 45.6%로 가장 많았고 미국(20.5%), 중국(15.5%)이 뒤를 이었다. 전남 수산물 수출 감소를 품목별로 보면 해조류 부문이 가장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올해 4~7월 4개월 동안 전남 수산물 수출액은 5130만 달러로, 1년 전(9600만 달러) 보다 46.6%(-4470만 달러) 감소

하며 반토막 났다. 품목별로 보면 전체 수출의 74.5%를 차지하는 해조류 타격이 컸다. 4~7월 해조류 수출액은 382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7740만 달러) 보다 50.6%(-3920만 달러)나 급감했다. 전복 등 패류를 포함한 연체동물은 36.8% 감소한 910만 달러를 수출했다. 어류 수출액은 9% 줄어든 35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남 해조류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약재와 함께 기상 악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도 겪었다. 지난해 전남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김 생산 비중은 78.3%였지만, 올해는 5.4%포인트나 떨어진 72.9%를 나타냈다.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되고 8~9월 중세 차례 태풍을 거치면서 김 생산을 서둘러 끝낸 여파가 많았기 때문이다. 올해 4~7월 전남 해조류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4800t에서 1만

5400t(-11.4%) 감소한 11만9400t에 그쳤다. 반면 어류 생산량은 10.1% 증가했고, 패류(1.6%), 갑각류(4.4%) 등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해조류와 연체동물(-29.3%) 생산 부진 영향으로, 전남지역 4~7월 전체 수산물 생산량은 1.3%(-1만1000t) 감소한 82만1200t을 기록했다. 박 과장은 "이달 초순까지 보성 특량만, 완도 내만, 함평만 등에 발령됐던 고수온 주의보가 해제되는 등 기상조건이 호전되며 해조류를 중심으로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외국인 인력 구인난이 심화돼 양식업 수확량이 단기간에 늘어날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중국을 제외하고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주문량 정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호우 피해 농·축협 힘모아 돕는다



전남지역 농·축협 임직원들이 지난 25일 무안군 삼합읍 농협 전남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2020년 전남농협 재해성금 전달식'에서 성금 1억2500만원을 호우 피해 농협에 전달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성금 1억 250만원 전달

전남지역 100개 농·축협이 성금 1억 2500만원을 모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전달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5일 무안군 삼합읍 지역본부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지역의 농·축협 14개소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성금 전달식은 김석기 전남본부장과

정승영 도운영협의회 위원장(해남농협 조합장)이 참석했다.

모금에 동참한 농·축협은 100곳으로, 자발적으로 모금을 벌였다. 성금을 지원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곡성, 구례, 광양 다압, 나주, 담양, 영광, 장성, 함평, 화순 등 9개 시·군이다. 이 가운데 피해를 입은 농·축협은 곡성농협을 포함한 22개소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북지관·홀몸 어르신에 김치 400상자 전달

한국농어촌공사



이웃들과 송편 나눔.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평동농협은 지역 부녀회원 25명과 지난 24일 광산구 옥동에서 '추석맞이 송편 나눔' 행사를 열고 직접 빚은 송편 200상자를 지역 경로당 20곳에 전달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한국농어촌공사는 추석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복지시설과 홀몸 고령인에 김치(4kg) 400상자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지역 농업회사법인과 연계해 지역 복지시설과 1인 고령자 가구에 4200상자에 달하는 김치를 전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무료 급식이 끊긴 취약계층 270명을 추가 선정해 김치를 전달했다. 김인식 사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나눔과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며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실천을 통해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최장장마·태풍에 쌀 생산량 지난해보다 1.6% 감소

368만t 생산...재배면적 72만6000ha로 0.5% 줄어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 영향으로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줄었다.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

부에 따르면 2020년산 쌀 생산량은 368만t으로 지난해 374만t보다 1.6%(-6만t) 감소했다.

재배면적은 73만ha에서 72만6000ha로 0.5%, 10a(1000㎡)당 생산량은 510kg에서 507kg으로 1.2% 줄었다. 산지유통업체의 2019년산 재고 부족과 2020년산 조생종 작황 부진으로 쌀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전국 산지 가격은 80kg 한 가마니당 19만2572원으로 지난해보다 2.8% 올랐다. 지난 8월 말 기준 2019년산 재고량은 13만2000t이다. 월 평균 13만2000t을 소진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달 하순이면 재고는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유엔 지구촌 기아 퇴치 캠페인 참여

'제로 헝거' 목표

'세계 식량의 날'(10월16일)을 앞두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유엔 기아퇴치 캠페인에 협력하기로 했다. aT는 지난 24일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제로웨이스트, 제로헝거' 캠페인 확산과 국내 식품기업의 UN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제로웨이스트, 제로헝거 캠페인은 음식을 먹을 만큼만 먹고, 음식물 쓰레기는 줄여 환경보호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이

렇게 절감한 비용은 기아퇴치기금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두 기관이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해외식량원조사사업 협력을 이어왔다. 또 aT는 UN식품조달시장에 대한 공공정보를 수집해 관심있는 국내 식품업체들에게 진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헝거 팬데믹'으로 이어지며 약 2억6000만명의 지구촌 인구가 기아와 굶주림에 시달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성료

매해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은 농협 광주지역본부가 올해는 사전 주문예약 방식으로 비대면 판매를 진행했다. 농협 광주본부는 광주지방경찰청·광주지방경찰청과 지난 23~24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농축산물 직거래 행사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본부와 광주지검·광주경찰청이 '우리 고장 먹거리 소비촉진 협약'을 맺고 매년 농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

전 주문예약 형식으로 대면 판매를 최소화했다. 직거래 장터에는 광주지역 14개 지역농협과 광주축협 및 하나로유통 호남지사가 참여했다. 농협 관계자는 "광주 대촌과 서창동에서 생산되는 샤인머스켓과 멜론이 큰 인기를 끌었다"며 "비대면 형식임에도 광주지검, 광주경찰청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아 지난해보다 높은 매출을 거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